

# 여수시 '스마트 교통도시' 만든다

### 20억원 들여 연말까지 조성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첨단화 국토부 공모에 전남 유일 선정

여수시가 20억원 들여 연말까지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국 90개 지자체가 신청해 최종 23곳이 선정됐으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여수시가 유일하게 뽑혔다.

여수시는 이 사업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원 등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다.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12곳의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음성안내·차량 경고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을 시행한다.

또 시내버스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4곳의

####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승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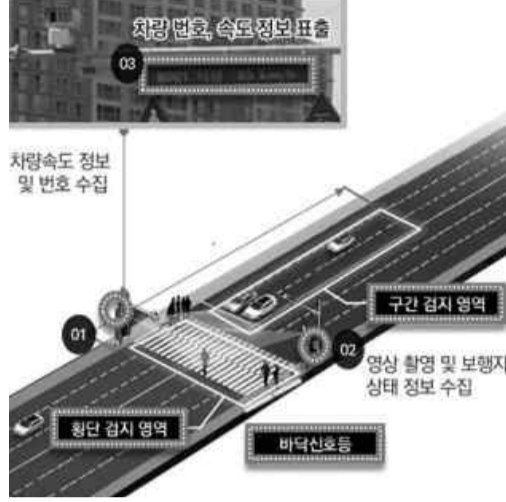
버스정류장에 냉난방 설비·공기청정기·CCTV·비상벨·정보 단말기 등을 갖춘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시정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

#### ■스마트 횡단보도 예시 그림



마트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구례 이승재 씨, 8000만원 상당 청가시나무 160그루 기탁

구례군 산동면에 거주하는 이승재(사진) 산동면장학회장이 최근 14년생 청가시나무 160그루를 구례군에 기탁했다.

기탁한 청가시나무는 높이 4.5m, 지름 15cm 이상의 14년생 성목으로, 조경협회 단가 기준으로 약 8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기탁받은 청가시나무를 '구례읍 1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례읍 공영주차장 녹음수로 심어 도심 온난화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례읍 10만그루 나무심기는 김순호 군수의 중점 정책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이다.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회장은 산동면장학회를 맡아 지역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은 "얼마 전 구례읍 1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대해 알게 됐다"며 "조경인의 한사람으로 동참하고 싶어 나무를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 순천시 상사면 청년회, 300만원 상당 마스크·쌀 기탁

순천시 상사면청년회는 최근 코로나19 극복 및 예방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마스크 3000장과 160만원 상당의 백미 5kg들이 80포를 상사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사진〉 상사면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마스크는 지역 80세 이상 어르신 400여명에게 전달하고, 백미는 어려운 이웃 8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사면 청년 4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상사면 청년회는 상사면에서 활동하는 지역봉사단체로 지난 설 명절에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건빵 150상자를 전달했다.



최상철 상사면청년회장은 "올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새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주삼동 이웃에 굴 20박스 후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 상준 소장은 최근 여수시 주삼동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굴 20상자를 후원했다.

〈사진〉 기탁된 굴은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중승 여수시 주삼동장은 "주삼동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 감사하다"면서 "후원 물품은 적소에 잘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주삼동의 지역복지를 위해 함께해 달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가축 분뇨 악취·오염 막고 풍년농사 짓고

### 곡성군, 가축분 퇴비 45만포 이달 말까지 농가 공급

곡성군은 가축분 퇴비 불철 공급 물량 45만포를 3월 말까지 공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2012년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와 부자재(톱밥, 발효제) 등을 활용해 퇴비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2월 중 이미 45만포의 80%에 해당하는 36만포를 영농현장에 공급했고, 잔여물량 9만포는 3월 말 농번기철 이전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퇴비 팻릿(화물을 쌓는 틀) 적재 단위를 70포에서 50포로 변경해 무게와 부피를 줄였다.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라 운반 및 보관 등 농작업을 더욱 쉽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희망자에게는 영농현장까지 퇴비를 운송하고 살포까지 해주고 있어 농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곡성군이 가축분뇨와 부자재를 활용해 퇴비를 생산, 지역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있다.

또 매년 더욱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고자 한국표준분석연구원 분기별로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분검사 결과 유기물 함량, 유기물 대질소비, 수분, 부속도 등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최상 1등급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더욱 품질 좋은 퇴비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공급물량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소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한·중·일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NCQ 유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중·일 노선 컨테이너 서비스 'NCQ(New China Qingdao Pendulum)'를 신규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NCQ는 중국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새로운 시계추항로이며, 이 서비스는 고려해

운과 남성해운에서 1000TEU급 선박 3척을 투입해 주 1회 운항한다.

기항지는 광양-청도-대련-부산-니가타-아키타-토마코마이-카마이시-센다이-오나하마-이마리-부산-광양 순이다.

이 서비스에 첫 번째로 투입된 '써니 아이리스'호는 지난 3일 광양항 한국국제터미널(KIT)에 입

항했다.

NCQ 서비스의 신규 유치로 광양항의 주당 컨테이너 정기서비스는 79.5항차가 됐다.

장방식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케팅부장은 "신규항로 개설은 중국·일본으로의 원활한 화물 운송과 광양항 신규 물동량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노선의 안정화와 광양항 이용 확대를 돕고 나아가 올해 목표 물동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